

특별기고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다. 이번 제2회 문자올림픽은 세계 27개국 문자가 참가했으며 1위는 한국의 소리 문자, 2위는 인도의 텔루구 문자, 3위는 로마자 알파벳이 차지했다.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1972년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후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73년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6615호에서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했다. 2006년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문화의 날이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문화의 달 행사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3년에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여 광주(04) 전주(05) 제주(06) 부산(07) 청주(08) 인천(09)에 이어 2010년에는 중순도시로는 최초로 목포에서 개최했다. 올해 2019년 문화의 달 행사지는 제주도가 지정되어 제주시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였다. 올해 문화의 날인 10월 19일(10월 셋째 토요일)에 펼쳐지는 나라 문화 큰잔치는 문화의 달 기념식과 2019년 1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문화예술인을 기리는 시

상식과 전국에서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 모은 최고의 공연 무대가 엮였었다.

문화란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지가(人智)가 깨어 밝게 되는 것으로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며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정신적 면모를 교양 있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의 개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흔히 문화를 정신적, 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 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문화의 날은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참여도를 높이며,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자 정한 기념일이다. 문화의 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념식 및 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등의 행사를 치른다. 또한, 문화의 날에는 공연·전시회·강연회 등의 문화예술 행사와 대한민국미술대전·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를 한다. 1999년 민간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민들과 한 마음 문화행사로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

를 공유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진 문화민족이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서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우리 문화를 버리고 외국의 타민족으로부터 전래한 외래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의식주 면에서 우리의 전통 의상이 더욱 편리하고 품위 있는 옷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식생활 문화에서는 우리의 음식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김치와 막걸리를 비롯한 우리의 음식문화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 문화에서는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과 기와집의 장점을 살리고 온돌방문화를 더욱더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 예절문화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국 국민의 기본 자세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풍물놀이, 농악, 남도창을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부각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인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우리 문화의 계승발전과 참신한 문화 창조에 힘써야 한다.

社說

한국당 호남예산삭감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 심의에 앞서 호남 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것은 그야말로 치졸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하수정치'의 표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유한국당이 호남예산까지 건드리며 집토끼를 단속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품수정치다.

한국당은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이들이 표면상 내건 이유는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예산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불투명하고 인공기능 사업은 다른 지역의 전략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돌출된 예산삭감행동에 분노와 성토를 하고 나섰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망국적 지역감정 재현을 통해 보수통합을 위한 치졸한정치적 노림수라"고 규탄하며 "518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고, 인공기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추진 의지가 명확한 상황 이라"며 한국당의 삭감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귀변 이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의원들도 한국당의예산삭감 방침에 반발했다.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이 문제사업 운운하며 예산삭감 방침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은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면 연내 출범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두 사업은 지역현안의 중심사업으로 반드시 관철돼야할 사업이다.

특히 광주 AI 인공기능 사업의 경우 올 초에 전국 10개 시 도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국당이 총복이나 대구나 강원도의 전략사업과 중복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역지에 불과하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사업에 번번이 탄지를 겪고 있는 한국당은 저급한 정치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당의 예산삭감 방침은 호남에 어긋장을 걸어 영남권 지지세를 끌어 올리려는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지역민들이 알고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독자기고

'불조심의 달' 화재예방 시민과 함께 해야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게 변해 본격적인 화재취급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겨울철은 기상여건 변화가 심하고 난방기구의 취급 증가로 화재 발생이 많은 만큼 생활하는 건축물 등에서 각종 화재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계절적 특성을 감안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조성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슬로건 아래 언론·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민 공감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119안전체험마당 운영, 어린이·청소년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119안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노력에도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화재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생활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또 불조심 홍보물을 게첨해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내 가정, 내 직장에 전기·가스·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독자기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어느덧 거리에는 짧은 반팔 옷차림의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며, 전국 도처에는 울긋불긋한 오색빛깔의 찬란한 단풍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이를 구경하려는 많은 행락객들이 북비는 계절이 돌아왔다.

한편, 우리 소방관서에 있어서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다.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속으로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목표로 홍보콘텐츠·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홍보, 연령별·유형별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 불조심 작품모집·119안전뉴스 경진대회·소화기 갖기 운동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다.

겨울철의 문턱인 11월부터는 이상기온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난방용품 등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은만큼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화재원인 중 불티, 아궁이, 용접, 화기취급 등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서 개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여부가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으로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이라는 문구가 선정된 만큼,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노력이 안전을 만들고 행복을 이루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속에서 안전을 실천하여 행복한 겨울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수소방서장 김용호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회장	김 경	I 보내실 곳
발행인	전 광 선	
사장·편집인	이 문 수	
편집국장	박 중 수	

주소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대표전화 (062) 227-0000 FAX (062) 227-0084
광고 (062) 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문로 18(서초동) 명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아이에게
꿈을 읽어 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